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우리가 이룩하는 값비싼 승리의 소식들이 전파될 때마다 미국놈들의 고민이 커질것이며 피뢰군깡패무리들이 점점 맥이 빠지게 될것이라고, 우리는 자위적국방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당의 웅대한 국방공업정책관철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놈들과 그 졸개들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똑바로 알게 하며 무모한 군사적망동질로 차례질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새기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성과를 토대로 위력이 더 큰 전략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에게 더 큰 《선물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지금의 이 기세로 더 큰 비약을 이룩해나갈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에게 미제국주의를 파멸시키며 그 졸개들을 다스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정의의 붉은 장검을 더 붉게, 더 억세게 벼려여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 최성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박사인 국가과학원 욕색진축 하여 28일 고인의 령전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상수상자 연구소 연구사 최성천동지의 화환을 보내시였다.
이며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 종업원들의 통근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륜전기재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륜전기재들에는 영예군인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며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당의 핵심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9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투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고무격려해주시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데 이어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또다시 돌려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영예군인들의 삶과 위훈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연설자는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은정어린 륜전기재들을 적극 애호관리하며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질좋은 수지제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공장지배인 강남익, 부원 최대현, 로동자 하광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소중히 간직하고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과 금골영웅광부들처럼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공장을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륜전기재들과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와 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은영을 빠고들며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당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병사시절의 그 본때, 그 기풍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펏펏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 참관, 부대실전배비 승인
세계언론들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참관하신 소식을 22일과 23일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발사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이 탄도탄을 계렬생산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킬데 대해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핵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충직한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로동계급이 조선식의 주체무기, 핵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탄도탄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미국의 AP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조선이 고체연료탄도미싸일을 발사하였다. 이 미싸일은 발사전에 탐지하기가 더 어려울수 있다. 중장거리탄도미싸일 《북극성-2》형시험발사는 무기체계전반의 기술적지표들을 최종확증하고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적응가능성을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배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발사결과를 분석평가하시고 흠잡을데없이 완벽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실전배비를 승인하시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북조선이 중장거리탄도미싸일을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대상물들을 타격할수 있는 능력이 보다 향상되였음을 시사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탄도탄에 설치한 촬영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사진을 보시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꼼빠스》는 중장거리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성공으로 조선은 더욱 자신심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평하였다.

시험은 조선이 미싸일개발에서 거둔 기적적성과들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탄도미싸일이 액체연료보다 훨씬 효과적인 고체연료에 의해 발사되였다는것이다.

둘째로, 미싸일을 지상의 자행발사대차에 설치하여 발사한것이다.

셋째로, 미싸일동체에 압착가스를 장착한것이다.

발사대에서 분출하여 일정한 높이에 오른 다음 고체발동기를 가동하여 미싸일을 대공으로 추진하는 기술은 발사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할뿐아니라 전투작전에서도 적들의 탐지를 피할수 있게 하는 높은 기술이다.

프랑스신문 《몽드》는 북조선령도자께서 미싸일시험발사를 참관하시고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긍지에 넘쳐 평가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극성-2》형에 적용된 랭발사기술은 가장 안전하고 발사장소를 은폐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다. 북조선은 미본토에 핵탄두를 날려보낼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많은 인터네트사용자들속에서는 《북조선은 평화를 손에 넣었다. 그들이 2 000번 시험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자기를 지키기 위한것이다.》, 《북조선은 미국을 면전에서 조롱하고있다.》, 《자주적인 나라 북조선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이 한일 울려나오고있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베르박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이즈베스찌야》, 로씨야 24TV방송, 즈베즈다TV방송,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네트통신 베그늠, 인터네트잡지 《뗌뷔위》,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인디아의 신문들인 《스테이츠맨》,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 《인디안 엑스프레스》, 인디아—아시아통신, 유엔아이통신, 지 뉴스TV방송, NDTV방송, 만마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마》,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런 함조보》, 《루데이》, TV《아시아소식통로》,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 우간다신문 《더 뉴 비전》, 키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미국의 CNN방송, 인터네트통신 《NK NEWS》,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BBC방송, 도이췰란드의 데페아통신, 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헌지지도소식들》과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북조선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성공》, 《북조선 중장거리미싸일 대량생산준비 완료》, 《미싸일발사 성공, 대량생산에로》 등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